

2020년 중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의 혁신과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지속되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등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편,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격 위험이 지속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가동함으로써 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CBDC 전담조직을 확충하여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검토,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 참여, 국제전문표준(ISO 20022) 적용방안 추진 등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CBDC 모의실험, 분산ID 표준 제정, ATM 활용방식 개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등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

①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적 변화도 지속되었다.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중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시

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증권, 보험, 여신 등의 금융서비스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접촉·비대면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금융이 본격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자금 보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현금 이용 비중 축소,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행계획 발표(2019.6월)를 계기로 2020년 중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향후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될 경우 통화주권을 위협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며, 중국(시범운영)과 스웨덴(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CBDC가 갖추어야 할 주요 원칙과 특성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를 발표(2020.10월)하였다.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기본 원칙

- ①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 ② CBDC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현금, 지급준비금 등)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민간 통화(상업은행 계좌 등)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
- ③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

자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BIS, 2020.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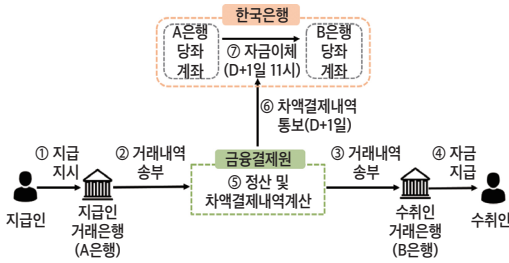
한편,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2019.6월)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G7, FSB 등의 국제기구 및 EU, 영국 등 주요국의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원칙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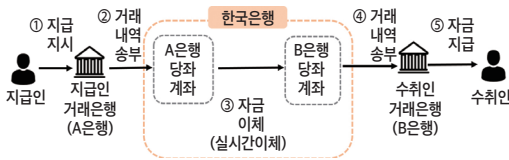
과거에는 기술 및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절감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최근 ICT 발전으로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이 수월해진 데다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소액결제 부문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중에는 헝가리, 브라질, 터키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스웨덴, 캐나다도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결제방식별 소액결제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예시)



실시간충액결제(RTGS) 방식(예시)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해외이주 노동자수 증가 등으로 글로벌 해외 송금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관련 수수료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BIS, FSB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전담조직(Task Force)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종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중장기 시계(2~5년)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④ 디지털금융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 등이 지속되면서 사이버보안 이슈가 증대되고 있다.

2020년 중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는 DDoS 공격 등에 의한 전산시스템 장애 유발, 일부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부정결제가 주를 이루었다.

2020년에는 국내·외 일부 금융기관뿐 아니라 증권 거래소 등 지급결제 운영기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지급결제 운영기관에서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에 모바일 OTP, 생체인증정보 등 강력한 2차 본인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나,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간단한 인증 수단을 선호하고 있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핀테크 기업의 간편 송금 및 결제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보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인증서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원활한 원격근무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격업무에 사용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 등을 악용하여 중요 자료를 유출하거나 전산 장애를 유발하는 사이버보안 사고가 증대될 수 있다.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사·감독기관도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BIS가 2019년 5월 설립한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통해 사이버 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합동 사이버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⑤ 한국은행은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가동하였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2020년 10월 12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혼합형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차감결제되던 기존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다자간 차감결제로 일원화하고 다자간 차감결제의 실행주기를 단축하였다.

또한 자금이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및 ‘일반당좌예금계좌’(기존 당좌예금계좌)로 계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일종당좌대출이 자동실행되도록 하여 참가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여 처리 중이던 기존 DvP1 방식(건별로 총량·총액 결제하는 방식)의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참가기관 간 직접 대금이체’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 밖에도 단말접속기관이 일정 기준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이체할 경우 책임자 승인 시 금액 입력 절차를 추가하고 예약·대기거래 취소동의 기능을 전산화하는 등 자금이체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들을 구현하였다.

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을 완화하였다.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라도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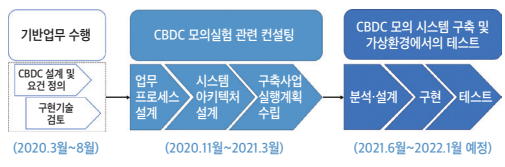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하고 당초의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⑦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산원장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모바일현카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내의 기존 디지털혁신 전담조직을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으로 확대·개편하고, CBDC 관련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 등 관련 연구를 강화하였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CBDC 모의실험을 위한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1월에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단계



자료: 한국은행

법적 측면에서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핵심 쟁점사항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9년 12월에 착수하였던 증권 대금동시결제의 분산원장기술 구현 모의 테스트를 2020년 4월 중 완료하였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Diem) 발행 동향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간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였다.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0년 6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거래, 가맹점에서의 직불결제, 거스름돈 계좌입금 및 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간편결제 통계에 포함되는 대상기관과 지급수단을 확대하고 오픈뱅킹공동망 이용통계를 신설하는 등 지급결제 통계를 개편하였다.

한국은행은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등에서 이루어진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RTGS 기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코로나19에 대비한 주요 FMI 대응 상황 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최근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 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⑧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2020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및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체계,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BCP) 등을 일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2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들의 일중 유동성 관리 현황, 업무지속계획 수립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이후, 업무지속계획 상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업무의 목표복구시간 지정, IT 관련 장애 발생 시 한국은행 등에 대한 즉시 보고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외환동

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CLS시스템과 국제 은행 간 금융전문 통신망(SWIFT)에 대한 국제적 협조 감시활동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속계획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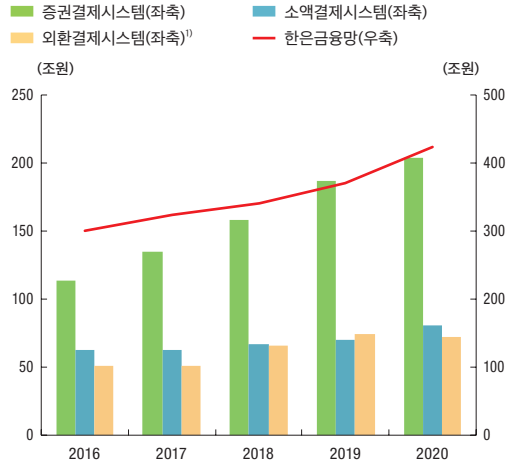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⑨ 2020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 이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평균 205.1조원으로 기관간RP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공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5.2% 증가한 80.2조원(일평균 기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 금액은 일평균 724억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증권·소액·외환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한은금융망의 결제금액은 일평균 423.6조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다.

주요 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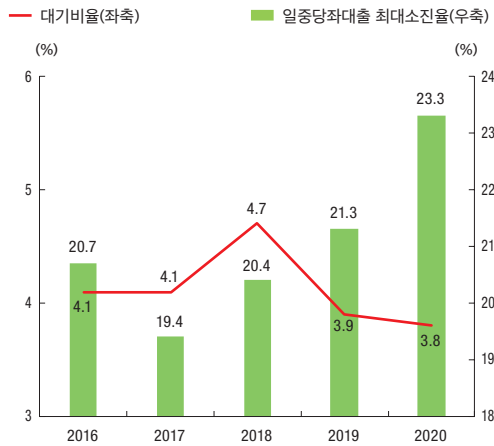
주: 1)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십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⑩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액 및 증권 결제, 국제적으로 연계된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결제 서비스를 연중 원활히 제공하였다.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비율은 3.8%로 전년(3.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3.3%로 전년(21.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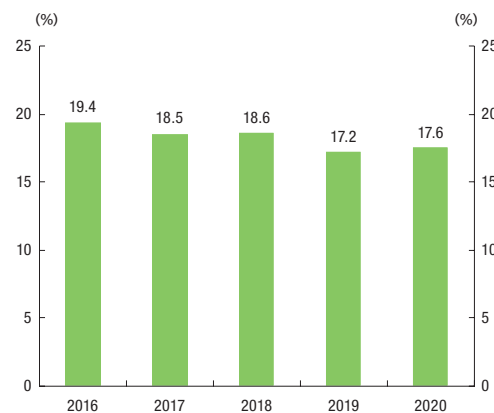
대기비율¹⁾ 및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²⁾ 추이(금액 기준)



주: 1)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 손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20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7.6%로 전년(17.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09회로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83회)보다 증가하였다.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¹⁾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장내 국채시장의 결제는 결제시한 이전에 전액 완료되었고, 장외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경우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 시점의 차이로 인해 결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리결제 비중이 5.9%로 전년(5.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향후 정책방향]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축소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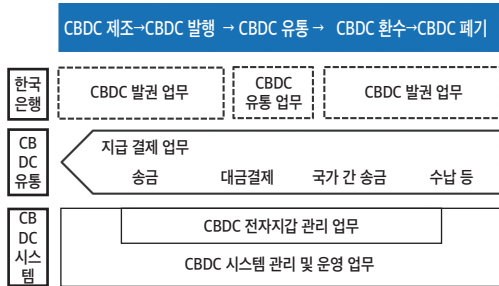
또한 2020년 중 BIS 등 국제기구 전담조직에 의해 마련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중 하나인 복수통화 통합 지급결제시스템에 원화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국제전문표준(ISO 20022)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검토와 참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며,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②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ATM 활용방식 개선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을 2021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환경에서 구축될 예정인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CBDC 모의 시스템 상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예시)



자료: 한국은행

이와 함께 CBDC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은행의 CBDC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 상황과 동 기술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신원 관련 정보(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가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지급수단 관련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요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결제 범용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온라인결제 기능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 및 국제기준 평가 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PFMI)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년 중에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대상으로 IT부문 운영리스크 관련 사이버복원력에 대한 CPMI-IOSCO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동 평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의 사이버복원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 국제기구의 사이버복원력 평가에 사용되는 조사항목을 활용하는 등 평가방법을 고도화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경험 공유차원에서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가 진행하는 합동 사이버보안 모의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